

차량 등록 주춤... 차고지증명제 약발 받나

서귀포시, 작년말 등록 10만4903대 6개월 전보다 ↓ 자기차고지 사업비도 조기 소진... 올해 증액 편성

작년 7월부터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변경 때 자동차 보관장소(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된 후 서귀포시의 등록차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세가 멈춘데 따른 영향도 일부 있지만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차고지 확보가 여의치 않은 이들의 고민이 커졌고, 작년 8월 이후 자기차고지사업에 예산이 모두 소진돼 보조금 사업이 중단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말 기준 등록차량은 10만4903대다. 차고지 증명제 전면시행 직전인 6월 말(10만4919대) 대비 0.02%(16대) 감소한 수치다. 2018년 말(10만3517대)에 견줘서는 1.3% 증가했다. 시의 연도별 등록차량이 ▷2015년 말 8만6231대 ▷2016년 말 9만3537대 ▷2017년 말 9만9560대 ▷2018년 말 10만3517대로 늘어났던 데 견주면 눈에 띄게 증가폭이 축소됐다. 작년 하반기 월별 등록차량은 7월 10만5027대에서 8월 10만5200대로 증가했다 9월 10만4990대로 줄어든

후 10월 10만4956대, 11월 10만4934대, 12월 10만4903대로 9월부터 12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아직 단정짓긴 이르지만 차고지증명제 효과가 미미하게나마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같은 등록차량 감소세가 주택 담보이자 율타리·대문을 열어내고 주차장 조성시 공사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던 자기차고지사업 신청이 차고지 증명제 시행 후 급증, 작년 예산 3억원의 조기소진으로 8월부터 중단된 영향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단독주택 거주자를 중심으로 차고지 조성 문제로 차량구입 시기를 늦춘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을 작년(3억원)보다 증액한 10억원을 편성, 300면 이상의 차고지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작년 자기차고지갖기 신청자 중 대기자(167명)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해 이달 초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이달 말에는 올해 차고지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 시행 후 등록차량 증가폭이 시행 전보다 주춤하는 상황"이라며 "자기차고지갖기사업도 차고지 증명제 시행 전에는 1면 조성 신청이 많았지만 시행 후에는 2면 신청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젤리토마토 서부지역 새 소득원 기대

농기센터 오늘 현장평가 "당도 높고 식미감 좋아"

신품종 젤리토마토가 제주 서부지역의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과육이 부드럽고 껍질이 얇아 입안에 걸리지 않고 젤리처럼 쫄쫄한 신품종 젤리토마토 재배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7일 시설원에 실증하우스에서 신품종 방울토마토 'CF엘로젤리'와 'CF젤리' 등 2품종에 대해 서부지역 소득작목 가능성 현장평가를 개최할 예정이다.



젤리토마토. 사진=제주도농업기술원 제공

2019년 기준으로 서부지역에는 90여 농가 35ha에서 일반토마토 및 대추형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젤리토마토는 당도가 9브릭스로 방울토마토보다 높고 입안에 껍질이 남지 않고 말랑말랑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아이들이나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이 먹기 좋아 도의 지역에서는 고급 레스토랑 식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얇은 과피로 인해 유통 중 쉽게 물러지는 특성이 있어 장기간 유통에 불리한 단점이 있다.

이날 토마토 재배농가와 연구회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젤리 토마토 품종 비교 및 재배적 특성 설명 ▷토마토 재배농가 의견 수렴 ▷현장 시식 및 식미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젤리토마토 생육과 상품성을 평가 후 토마토 재배농가들의 재배의향을 조사할 예정이며, 제주시내 하나로마트에 납품해 소비자 반응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성훈기자 sycho@ihalla.com

지적측량기준점 615점 신설 제주시 "토지경계 분쟁 방지"

제주시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측량빈도가 높은 지역에 지적측량기준점 615점을 지난해 12월에 신설하고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으로서 경계측량, 분할측량, 각종 개발사업 등의 측량 시행시 활용하게 되며 측량자마다 동일한 측량성과 제공과 측량시간 단축은 물론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올해 주차공간 2176면 확충... "주차난 해소"

제주시 517억여원 투입 주차장 복층화 등 추진

제주시는 올해 심각한 주차난 완화를 위해 부지 매입, 주차장 복층화, 공한지 주차장 조성,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등 주차시설 확충에 주력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주차시설 확충사업에 총 사업비 184억4600만원을 투입해 주차대수 1460면을 확보했으며 주차장 부지도 7필지(6437.9㎡)를 매입해 주차심화지역 주변 주민들에게

주차편의 시설을 제공했다. 올해에는 공영(공한지)주차장 22개소(345면·5억3100만원)·복층화사업 8개소(1231면·482억4200만원)·자기차고지(600면·10억원)를 조성해 주차장 2176면을 확보하고 기존 무료주차장 10개소를 유료로 전환(20억원)하는 등 총 사업비 517억7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공한지 주차장 조성은 이미 실시계획을 완료했고 2월에 착공해 5월 준공할 예정이다. 복층화 사업은 현재 경관 심의 및 BF에비인중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

고 있다. 2월중 실시계획을 완료해 3월부터 본격 착공해 연내 준공할 예정이다. 주차난이 심한 노형동 2612-2번지(구 제주물류 서측)의 주차장 복층화(164면·49억원)공사는 오는 8월 준공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생활형SOC 사업 등을 활용해 복층화 사업은 물론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확대·시행해 주차 회전을 제고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겨울무 수확 한창 포근한 날씨를 보인 6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무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대정읍장 송호철 사무관... 주민추천 첫 사례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 예정

주민들이 읍면동장을 직접 뽑는 주민추천제를 통해 대정읍장에 송호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장이 뽑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3일 대정읍 주민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송 사무관을 대정읍장으로 선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통해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첫 선발 사례다.

주민추천위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대정읍장에 응모한 후보자 2명의 읍 운영계획 발표에 이어 패널 질의·응답, 주민추천위원 심사·평가, 평가결과 집계, 대정읍장 추천대상자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주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송 사무관을 이달 15일 예고할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대정읍장 직위에 임용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도내 지하시설물 정보 구체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시설물(상수관로) 측량을 통해 매설위치, 심도 등 속성 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8년 발생한 아현동 KT화재와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 등 잇따른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로 인해 지하시설물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이미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이도1동 상수관로 구간(35km)을 첨단기술인 '전자유도방식 탐사기술'과 '지하레이더 탐사기술'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측량 결과는 도로굴착 확인을 통해 검증이 완료됐고, 높은 정확도로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공측량성과심사'에도 통과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송호철 사무관을 이달 15일 예고할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대정읍장 직위에 임용할 계획이다.

송호철기자 seb119@ihalla.com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발매 전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캐피탈의 시차 전세렌터카로 갈아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세요!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팀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품음선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카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하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델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전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세금 부담
 정비 부담
 보험 부담
 주행거리 제한

S보험사
 정비 보험
 S정비업체
 자금보존

국토교통부 | 평가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감귤 신상품 분양

2020년 봄 출하 목록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앵무(무늬) · 천혜앵무(무늬)
한라봉 · 탐나는봉 · 황금향
미니향 · 아마나스
제라몬(레몬)

조생
유리살생 · 궁천(궁천변이지)
하계 조생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포 방향 300M 위치)

종사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010-2691-1883
010-3055-1885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도 24시간 서비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